

令和 4 年 度

前 期 日 程

韓 国 語 問 題

(注 意)

1. 問題冊子及び解答用紙は、試験開始の合図があるまで開いてはいけない。
2. 受験番号は、各解答用紙の受験番号欄に正確に記入すること。
3. 問題冊子のページ数は、表紙と白紙を除き 6 ページである。脱落している場合は直ちに申し出ること。
4. 解答用紙は表紙を含めて 4 枚である。
5. 解答は、解答用紙の指定されたところに記入すること。枠からはみ出してはいけない。
6. 問題冊子の余白は、適宜下書きに使用してよい。
7. 解答用紙は持ち帰ってはいけない。
8. 問題冊子は持ち帰ること。

I. 次の文章を読んで、後の問いに答えなさい。

아파트에 살던 후배가 땅 집으로 이사간다고 하길래 덮어놓고 잘했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정작 어디다 집을 샀는지 동네 이름은 별로 귀담아들지 않았다. 무심한 것도 ①일종의 버릇인가 보다. 내 노쇠현상의 ②특징이 이름이나 숫자에 대한 ③현저한 기억력 ④감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런 것들은 아예 건성으로 듣게 된 게 버릇이 된 듯싶다. 그 대신 어떻게 생긴 집이며 마당은 있는지, 방은 몇 개고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꽤 [1] 알고 싶어했다. (A) 사실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수년 전 오랜 아파트생활을 ⑤청산하고 단독으로 이사를 했다. (B) 포장 이사라 힘들 일이 없었는데도 내 생애의 마지막 이사라고 스스로에게 되풀이 다 집을 했다. 힘이 안 들 줄 안 게 끝나치고 나니 오히려 녹초가 되었다. 내 머릿속에 힘드는 일이라고 붙박인 일이 조금도 힘 안 들이고 뚫어지는 걸 보는 것이 그렇게 피곤했다. 땅 집에 누운 첫날 밤 이상한 피로에 겹쳐 도대체 뭘 찾아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저지른 일이 하도 [2] 딱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름다운 전망, 상쾌한 공기, 조용한 환경, 적당한 고독,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니던가. 그 밖에 뭘 더 바랐을까. 온갖 (가)편리한 기능이 구비되고 투자 가치까지 보장된 아파트에 살면서 줄곧 이게 아닌데 싶었다면 이게 아닌 저것은 뭘였을까. 나만의 비밀스럽고 고유한 추억이 점점 안 중요해지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텅 빈 느낌이 아파트 탓이 아니듯이 땅 집은 그런 것을 [3] 품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단독주택일수록 아파트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본떠 불편한 점이 조금도 없을 것 같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⑥책임은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달려 있다. 수도꼭지 하나 갈아 끼 (나)능력이 없는 위인이라는 사실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실은 이사온 첫날밤의 불안 중 그게 가장 공포스러웠다. 다행히, [4] 봄이었다.

다음날 아침 마당에 내려서자 예서제서 흙을 (다)뚫고 솟아오르는 여리고 예쁜 싹들이 보였고, 그것들이 이 세상 빛을 보길 참 잘했다고 저희끼리 좋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건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기에 내 안에서조차 땅 집에 이사오길 잘했다는 화답이 샘솟는 듯한 느낌이 왔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요 위안이였다. 후배는 나보다 이십 년은 아래다. 실리와 편리를 둘 다 ⑦희생하고 얻은 게 기껏 봉숭어나 채송화 나부랭이라 해도 하나도 손해볼 것 없는 나이가 되려면 아직 아직 멀었다. 그런 조심스러운 의구심 때문에 도대체 당신은 뭘 찾아 먹으러 그 좋은 아파트 놔두고 땅 집에 가려는 거야? 라는 난폭한 질문을 예비해놓고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건 말건 후배는 예

정대로 이사를 했고 낯선 동네의 새로운 풍경을 얘기해주었다. 주로 점잖은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오래된 주택가라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학이 가까워서 그런지 온종일 창밖만 내다보고 있어도 그 ㉠활기 때문에 [5] 줄 모른다고 했다. 대학 이름을 물었더니 성신여대라고 했다.

(c) 성신여대면 돈암동에 있을 텐데? 나는 좀 놀란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동으로 나뉘어져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후배가 가르쳐준 건 새 이름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쪽 지리에 [6]. 위치를 자세히 물어보니 성신여대와 성북경찰서 사이인 게 분명했다. 내 처녀적의 마지막 집도, 성신여고와 성북경찰서 사이에 있었다. 내가 시집갈 무렵 친정집도 판 동네로 이사를 가버려서 다시는 가볼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있다고 해도 피했을 것이다. 나는 오십 년 전에 그 동네를 떠났다. 오십 년은 긴 세월이다. 돈암동은 외진 동네가 아니다. 도심에서 멀지도 않다. 혜화동 고개를 넘어 미아리, 길음동, 수유리로 통하는 대로를 거치는 일이 오십 년 동안에 [7] 한두 번만 있었겠는가. 그 길가에 내가 단골로 다니던 동도극장이 없어진 것도 오래 전이다. 그게 없어진 걸 안 것은 버스나 전차의 ㉡차창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그게 있던 자리가 허전해 허리를 [8] 고개가 아프게 되돌아보았다. 그때 내가 안타깝게 배웅한 건 단지 극장 자리가 아니라 비 내리는 ㉢흑백화면 속의 잔 마레나 샤를르 보와이에였을 것이다.

【박완서(2021)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問 1. _____部㉠～㉢を漢字で表記しなさい。(旧字体、新字体は問わない。)

問 2. [1] ～[8]を埋めるのに最も適当な語句を次の語群の中からそれぞれ選びなさい。

- [1] 구질구질, 꼬치꼬치; 대충대충, 살짝살짝
- [2] 한심하고, 대견하고, 감쪽하고, 훌륭하고
- [3] 새삼, 간신히, 저절로, 일부러
- [4] 마침, 괜히, 불과, 그저
- [5] 심심한, 반가운, 흐뭇한, 궁금한
- [6] 둔했다, 흰했다, 어두웠다, 빨랐다
- [7] 굵이, 하필, 어찌, 가령
- [8] 비틀고, 구부리고, 펴고, 메고

問 3. _____部 (가) ~ (다) の発音を例にならって発音どおりに書きなさい。
(例: 단어 → 다너)

問 4. 下線部 (A) について、「사실 말하고 싶은 건」はどのような内容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か。本文から読み取り、日本語で説明しなさい。

問 5. 下線部 (B) について、筆者はなぜこのように感じたと考えられるか。本文から読み取り、日本語で説明しなさい。

問 6. 下線部 (C) について、筆者はなぜこのように行動したと考えられるか。本文から読み取り、日本語で説明しなさい。

Ⅱ. 次の文章の下線部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1)

㉑ソウルには哲学者が多いねといった西洋人がいたそうだと。なるほど、ひとびとはむっつりした顔で歩きながら何か思索にふけっているみたいに見える。しかし、これはかなりせわしない思索だ。日本人の歩き方がせっかちだといっていたかれらが、街頭では実に焦り焦りとして見えた。

そのせいか、ソウルコリを探索しながら、私はほんとにたくさんの人にぶつかった。文字通りぶつかったのであって、あまり形而上学的な出会いではなかった。㉒とにかく、前から来る人は避けようとしてもぶつかってくるのだ。東京の街のように地面が見えないくらい人が群れているのだったら、さもあらんと思うけれど、よけようとすればよける余地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前からくる人はぶつかってくるし、後からくる人は私の肩を押しつけていく。街頭にあるとき、私はずっと腹をたてつづけてい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最初は「あっ、どうもすみません」なんて謝っていたが、二日ばかりでやめた。

ところが、一年ばかりしてふと気がついてみると、ほとんどぶつからずに歩けるようになっていたのだ。ひとびとが余裕を取り戻してきた証拠だろうかと思った。しかし、帰国後、アメリカ帰りの韓国人がある随筆に、やはり私と同じような経験を書いているのを読んで、事態はたいして変わっていないのを知った。㉓私はこのアメリカ帰りのスマートで鷹揚な歩きっぷりを想像することができる。かれは場違いな歩き方で、ひとびとにとって眼ざわりで異質な存在であるにちがいないのだ。かれもいずれ、ぶつからずに歩けるようになるだろう。

㉔私は私で、街のたたずまいやらひとの顔やら服装なんかは日本とそっくりだんと思いながら、韓国人のような顔をして、かれらと同じ速度、同じ動作で歩いているつもりだったのだけれど、やはりその呼吸において全く異邦人だったわけだろう。それに気づかず、やみくもに腹をたてていた。

【長璋吉(1985)『私の朝鮮語小辞典・ソウル遊学記』、河出書房新社】
(一部原文に改変を加えた。)

(2)

①国際経済の主軸が西欧から非西欧に移動し、世界の総人口の半数以上が住むアジアは、世界経済の最も活況ある地域となりつつある。しかしアジアの国々の国家システムや経済体制は欧州のように一定の共通枠組みをいまだつくりあげていない。一見、大きな国家間の衝突のないようなアジアだが、米国と肩を並べることを目指し強大な大国意識を形成しつつある中国の台頭があり、かたや反西欧の軍事独裁制の国や一党支配を続ける国、また急激な経済成長による中間層の成長が民主化運動を起こしている国々など多様で流動的な国家体制の国が多い。こうしたアジアの情勢は、予断を許さない。

今後、アジア内においても、国家間、あるいは国内での多くの軋^{よこしま}みや緊張が予想される。こうした状況下において、それぞれの国や社会が文化を伝えあい、共通性や異質性を発見し、相互に魅了し、刺激し、そしてお互いが生き生きとした想像力をもつ人間として身近な地域の日常生活から、国境を越えたコミュニティまで、複数のコミュニティをつくるのが、もっとも必要である。②状況が決定的な二極分解を控えざるをえないとき、これらの人々の実生活と一人一人の活動からなる文化的、社会的コミュニティのいくつもの重層的なつながりが、セイフティ・ネットを必ずつくる。そして文化交流の大きな貢献が期待できるのがまさにこの領域である。文化交流の実践は、人々が、政治イデオロギーの先導や国家利益のみの闘争に対して、また、国家間、国際社会での緊張に対して、冷静に見つめ、沈着に判断できる基盤をつくる。③アジアの成長を経済や国家や企業利益のみに求めるのであれば、安定からはほど遠い。アジアの安定した成長のためには、文化政策が文化交流の道をならすことが不可欠である。

【足羽與志子（2012）「東アジアの安定と文化政策」,
一橋大学東アジア政策研究プロジェクト編『東アジアの未来 安定的発展と日本の役割』,
東洋経済新報社】

Ⅲ. 次の文章を日本語に訳しなさい。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겪을 때와 행사나 의례 때에, 꼭 떡을 만들어 그 마음을 담는다. 식생활의 주된 식품이 곡식인지라 자연스럽게 곡식으로 만드는 떡이 밥과 함께 대중을 이룬다.

떡에 얹힌 속담도 많아서 이를테면 “떡 주무르듯 한다”는 말은 떡 만드는 솜씨에 빗대어, 뜻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은 떡이 곧 맛난 것, 좋은 것임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와같이 떡은 우리의 식생활과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복려(1989) 『떡과 과자』, 대원사】

(2)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한 사람들 중 윤주가 가장 튀었다. 찢어진 청바지에 희끗하게 보푸라기가 난 상의 재킷, 인디언들이나 할 법한 무거운 이어링과 굵고 요란스런 목걸이, 암갈색과 초록색으로 칠한 눈과 입술, 평키에 가까운 물들인 머리를 한 그녀는 외관상 히피에 가까웠다. 얼굴은 암전하고 예쁜 편이지만 성격은 강한 두 눈빛에 들어 있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어야 할 스타일이지만 그녀는 보다 넓고 안락한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에 앉은 채 기내 헤드폰을 졌다. 팔걸이대 끝 몇 개의 조정장치 번호를 그녀는 차례로 눌러보았다. 음악 다이얼이었다.

【김하인(2001) 『일곱송이 수선화』 1, 생각의 나무】

(3)

인구의 양·질적 관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서 조선 후기 이후에 전개된 보건의료의 흐름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끔찍한 전염병이 매우 자주 유행하여 국가 전체의 인구를 앓아갔기 때문이다. 전염병의 한 차례 유행으로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십 만 명 이상의 인구가 망실되었으며, 어떤 해에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죽어 나가기도 하였다. 전염병 피해는 전란의 피해보다도 더 컸으며,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 증식 및 국력 배양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신동원(1997) 『한국근대보건의료사』, 도서출판 한울】